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제6회 KBUF ‘Young Buddhist Camp’를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뜨거운 햇볕조차 결실을 이루겠다는 양분으로 삼고,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만나는 열정과 패기에 큰 격려를 보냅니다.

올해 캠프 주제인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되는 무한능력발전소”가 되어 더욱 활기차게 그리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이러한 열정과 패기를 통해 직면한 사회적 요구와 갈등에 지혜롭게 이겨내고, 함께한 밝은 얼굴들에서 미래의 희망을 나누며 앞날의 불안과 걱정을 말끔히 씻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이며 대학생 불자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대학생 청년 불자들의 결집의 장인 캠프기간 동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라며,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채은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의 진력을 치하하며,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거듭 확인하는 캠프가 되기를 불보살님 전에 기원합니다.